

누두흉의 외과적 치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윤경찬 · 금동윤 · 최세영 · 박창권 · 이광숙 · 유영선

누두흉은 하부흉골과 인접늑연골이 함몰되는 선천성 기형으로 흉벽기형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 대부분 미용적인 이유로 수술이 시행되어지며 수술시기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면을 고려할 때 학동기 이전에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있다. 누두흉의 수술 필요성 및 방법론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Ludwig Meyer에 의해 처음으로 교정술이 시도된 이후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고, 최근 Ravitch술식에 의한 흉골거상법과 Wada술식에 의한 흉골반전법이 누두흉의 치료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누두흉의 외과적 치험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수술치료 방향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누두흉의 외과적치료를 받은 24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주소, 동반질환유무, 변형의 정도, 심전도소견, 슬후 합병증 및 슬후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등을 분석하였다. 변형의 교정치는 일부에서 웰치지수(Welch index)를 이용하여 술전 및 슬후 변화를 관찰하였고, 만족도는 Humphreys 평가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환자의 연령분포는 3세부터 21세까지였으며 5세 이전이 9례, 6세부터 12세사이가 8례, 13세부터 21세까지 7례였다. 성별은 남자 21례, 여자 3례로 남자가 많았다. 내원 당시의 주소를 보면 외관상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운동시 호흡곤란 5례, 잦은 상기도감염 증세 4례가 있었다. 동반질환은 심실중격결손증 1례, Marfan 증후군 1례였다. 심전도상의 이상소견으로는 심장축의 우측편위 5례, 좌심실비대 3례, 불완전 우각차단 3례등을 보였다. 슬후 합병증은 창상감염 2례, 기흉 2례, 재발 1례있었으며, 창상감염은 정기적인 외래방문으로 치료되었고, 기흉은 폐쇄성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재발 1례는 Ravitch술식후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시 변형 Wada술식으로 교정하였다.

웰치지수(Welch index)는 술전 평균 5.86이었으며 슬후 4.10으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P < 0.05$). 환자의 만족도는 Humphreys 평가기준상 excellent 17례, good 4례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누두흉의 외과적 치료는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이며 신체적, 정신적측면에서 환자의 생활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